



미 증시, 파월 의장의 완화적 발언에 강세

미국 증시 리뷰

7일(목) 미국 증시에서는 상원에 출석한 파월 의장의 금리인하가 가까워졌음을 시사한 발언, 6월 금리인하 가능성을 높인 ECB 회의 등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조성이 조성됨에 따라 엔비디아(+4.5%) 등 성장주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다우 +0.3%, S&P500 +1.0%, 나스닥 +1.5%, S&P500은 신고가로 마감, 나스닥은 장중 신고가를 경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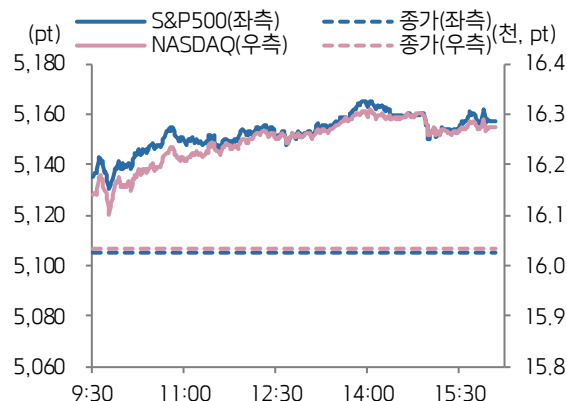
파월 의장은 6일 하원 증언 때와 마찬가지로 7일 상원 증언을 통해 금리인하에 대한 자신감이 생겨나고 있다는 식의 입장을 표명. 인플레이션이 예상대로 하락한다면 올해 금리인하가 가능할 것이라면서, 너무 오랫동안 금리인하를 기다리는 것에 대한 리스크도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경제와 통화정책 모두 좋은 위치에 있다면서, 예상대로 미국 경제가 움직인다면 올해 연세가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언급.

유럽중앙은행(ECB)은 3월 통화정책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4.5%로 동결. 라가르드 ECB 총재는 유로존 경제는 여전히 취약한 상태이나,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 중동발 지정학적 갈등이 인플레이션을 높일 수 있겠으나, 현재 유로존의 인플레이션은 2% 목표치를 향해 잘 가고 있다고 평가. 다만, 더 강한 자신감을 얻기 위해서는 더 많은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며, 6월에는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

미국의 주간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1.7 만건으로 전주(21.7 만건) 및 컨센(21.7 만건)에 부합. 연속실업수당청구건수는 190.6 만건으로 전주(189.8 만건) 및 컨센(188.9 만건)을 소폭 상회. 4분기 비농업부문 생산성은 3.2%(QoQ)로 전분기(3.2%)와 동일했으나, 컨센(3.1%)은 상회. 4분기 단위노동비용은 0.4%(QoQ)로 전분기(0.5%) 및 컨센(0.7%)을 모두 하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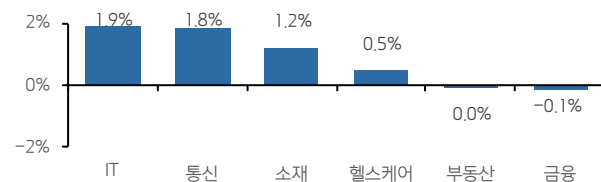
우에다 가즈오 BOJ 총재는 국회 출석 자리에서 초과 기준율을 높이는 형태로 긴축 정책을 실행할 수 있다고 밝힘. 현재 인플레이션 목표를 달성하는 정확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임금과 인플레이션의 선순환이 확인된다면 초 완화적인 통화정책을 지속할 지 여부를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 다만, 정책 개정 전후에 불연속성이 없도록 할 것이기에, 수익률 곡선 통제 정책을 종료하더라도 국채 매입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강조.

S&P500 & NA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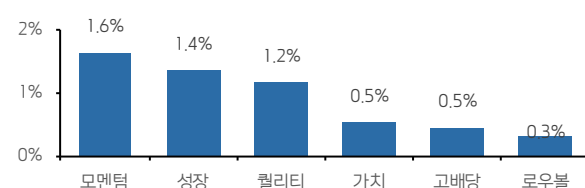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647.62	+0.23%	USD/KRW	1,330.78	-0.29%
코스피 200	356.82	+0.16%	달러 지수	102.81	-0.54%
코스닥	863.37	-0.84%	EUR/USD	1.09	-0.02%
코스닥 150	1,414.02	-0.84%	USD/CNH	7.20	+0%
S&P500	5,157.36	+1.03%	USD/JPY	148.04	-0.01%
NASDAQ	16,273.38	+1.51%	채권시장		
다우	38,791.35	+0.34%	국고채 3년	3.317	-0.3bp
VIX	14.44	-0.41%	국고채 10년	3.397	+2bp
러셀 2000	2,084.74	+0.81%	미국 국채 2년	4.501	-5.2bp
필라. 반도체	5,165.83	+3.36%	미국 국채 10년	4.083	-1.9bp
다우 운송	15,848.04	+1.11%	미국 국채 30년	4.242	+0.3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974.22	+1.19%	WTI	79.44	+0.39%
MSCI 전세계 지수	765.88	+0.6%	브렌트유	83.23	+0.33%
MSCI DM 지수	3,357.03	+0.59%	금	2167.2	+0.42%
MSCI EM 지수	1,027.95	+0.61%	은	24.35	+0.3%
MSCI 한국 ETF	65.88	+1.23%	구리	391.8	+1.23%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

MSCI 한국 지수 ETF 는 +1.23%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0.62%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91% 상승.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322.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8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주요 체크 사항

1.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대 및 원달러 환율 급락
2. 파월 의장 발언 불확실성 일부 해소에 따른 10 년물 국채금리 및 달러 하향안정
3. 총선 이후 저 PBR 주 테마의 지속가능성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중앙은행의 긴축 사이클 종료 시사가 달러화 및 국채 금리 하락을 촉발하며 위험자산 선호심리는 확산, 미증시는 최고치 경신. 전일 파월 의장은 지속 가능한 2% 물가 목표가 멀지 않았다(not far)면 올해 안으로 금리인하가 가능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전일 보다 강한 비둘기적 스탠스를 보여주었다고 판단.

이와 더불어 전일 ECB 는 인플레이션 전망치를 기존 2.7%에서 2.3%, 근원 인플레이션 역시 2.7%에서 2.6% 하향한 반면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6%로 하향 조정. 라가르드 총리는 금리인하 논의는 없었다고 언급했지만, 인플레이션 위험과 관련한 문구를 완화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시장에서는 ECB 역시 6 월에 금리인하가 가능하다는 시각이 우세.

FedWatch 상 6 월 금리인하 확률은 56%대까지 상승, 6, 7, 12 월 3 번의 금리인하를 예상하고 있는 것으로 컨센서스가 형성. 유로존이 연준보다 빠르게 금리인하를 시작할 확률은 낮고 경기 침체에 직면해 있지만 향후 긴축적인 환경이 완화될 가능성 및 경기 반등 기대감이 작년 중순 이후 처음으로 유입된 점이 긍정적.

미 증시 단기 밸류에이션 부담은 존재하지만, 3 월 FOMC 이전까지 위험자산 선호는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 3 월 들어 엔비디아 제외 테슬라, 애플 등 M7 주가가 쉬어가는 동안 중소형주로 위험선호심리가 확산되며 쏠림 현상이 일부 완화 (YTD 수익률 나스닥 1.7% vs 러셀 2000 2.8%).

금리인하를 위한 전제인 견고한 고용시장과 관련해서도, 2 월 감원 계획은 mom 3%, yoy 9% 증가하며 둔화를 시사했으나, 대부분 기술과 금융 부문에 집중되었다는 점, 특히 IT 업종 내에서도 AI 관련 부서와 AI 와 관련이 없는 부서간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감안시 강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준은 아니라는 전망 유효. 추가적으로 파월 의장 역시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에 대해 관리가 가능하며 중소형 은행에 국한된 이슈라고 일축했으며, 은행의 유동성과 관련된 규정을 혁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에서 대형은행에 대한 규제가 향후 강화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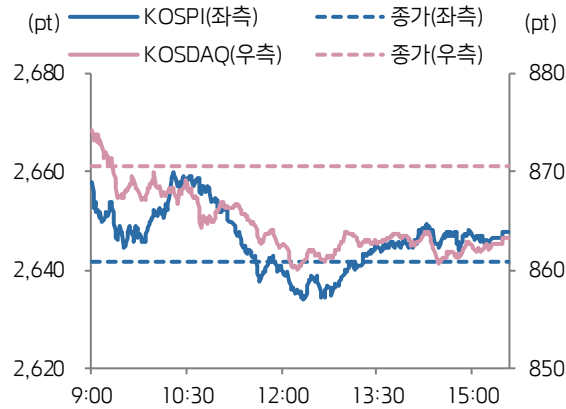
7 일(목) 국내증시는 예상에 부합했던 파월의장 발언, 안정된 달러 및 금리 움직임에 상승출발했으나, 모멘텀이 부재한 영향으로 외국인 2 거래일 연속 순매도 시현하며 혼조세 (KOSPI +0.23%, KOSDAQ -0.84%)

금일에는 사상최고치 경신한 미 증시 및 위험자산 선호심리 확산 영향에 힘입어 상승출발할 것으로 예상.

순환매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반도체 업종에서 차익실현 물량 출회된 반면, 코스피는 이차전지와 저 PBR 추가 동반 강세. 삼성 SDI(13.03%)는 인터배터리 2024 개막식에서 내년 초 46 파이 배터리 양산 목표 및 고객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높이규격을 80~120 mm로 다양화한다고 밝힘. LG 에너지솔루션(+3.23%), LG 화학(+0.34%), POSCO 홀딩스(+0.80%) 대형주 중심으로 강세보이며 코스피 상승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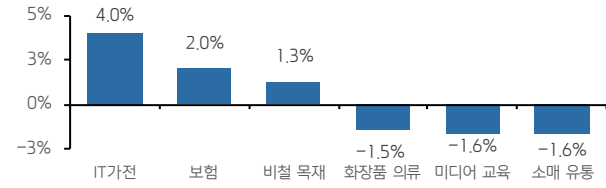
한국거래소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가이드라인 공개 시점을 기존 6 월에서 5 월로 앞당겨 5 월 2 차 세미나에서 공개하는 것을 목표로 7 일 자문단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발표. 정책 모멘텀은 약화된 상태지만 밸류업 미달 기업 거래소 퇴출 방안 언급, 자문단 회의 소집 등 후속조치들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저 PBR 주들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 기조 역시 유효. 이에 따라 총선 이후에도 밸류업 정책이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 변화가 나타나는지 여부에 주목할 필요.

KOSPI & KOSDAQ 일종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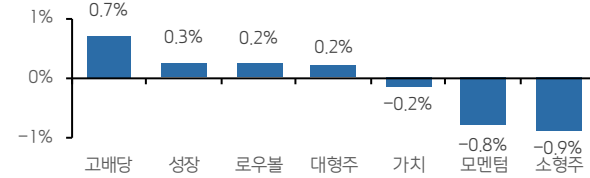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